

더민주 원내대표 후보 간 합종연횡 활발

주류·비주류 진영별 연대 논의... 설훈·안규백 불출마 46.3% 초선 표심 관건... 총선 공약 실천기구 설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다음달 4일 선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주류와 비주류 진영별로 교통정리가 진행되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져, 애초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경선 구도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현재 4선 당선인 중에 강창일·이상민 의원이 출마를 결정했고, 변재일·안민석·조정식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3선 당선인에서는 노용래·민병두·우상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할 방침이다.

주류 측에서는 우상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불밀 접촉 등을 통해 단일화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고민하던 설훈 의원은 같은 민주당계인 소속인 우원식 의원을 밀기로 했고, 안규백 의원은 출마를 접고 우원식 또는 홍영표 의원을 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측에서는 강창일·노용래·민병두 의원이 지난 24일 모여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민 의원은 외연 확장을 위해 독자영역 확보에 공을 들인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이상민·변재일 의원 등도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들은 전체 당선인 123명 가운데 57명(46.3%)으로 가장 규모가 큰 초선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 선거인만큼 아직 얼굴도 모르는 초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탓에 면대면으로 설득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연설 등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3선 후보는 28일 “초선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계파가 후보를 정하더라도 원내대표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당일 후보 연설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초선이 많다”라고 전했다.

당 원내대표 선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9~30일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선거 당일인 다음달 4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정견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더민주는 제1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인선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지만, 더민주는 대표 직속 자리에서 대표가 직접 임명한다. 더민주는 일단 이른 시일 내에 총선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총선공약실천·대응기구인 ‘더불어공약실천단’(가칭)을 설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임 비대위 대표는 새로 임명할 정책위의장에게 이 기구의 책임자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인사는 “김 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명에 실력과 신망, 통찰력 등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통 재선이 정책위의장을 맡아온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중랑감을 더하기 위해 3선 의원 가운데 중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군이 원내대표 후보군과 겹쳐 인선 시기는 5월4일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자리 모인 김무성·정세균·박지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열린 백상 장기영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내분

최경환 “친박 지속지원 불출마해야”...유기준 “그래도 출마”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부가 4·13 총선 참패 이후 지속하는 의미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경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홍문종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 판도 자체가 근본적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박 핵심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은 28일 “민심을 겸허히 받든다는 차원에서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안 나가는 게 맞다”면서 “유기준 의원은 친박 단일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유기준 홍문종 의원과 전날 3차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으나 유 의원이 출마를 고수하자, 경선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친박계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외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 핵심관계자도 이날 “유 의원은 대통령 이름을 도둑아 한자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제 20대 당선인 122명 가운데 친박계는 60~70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친박계가 지지표를 던지지 않을 경우 당선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장고 끝에 새누리당의 화합과 단결, 국회에서의 협치·상생의 정치를 위하여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정체위의장 러닝메이트 후보로 충남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중립 성향의 이명수 의원을 선택했다.

앞서 김재경 의원도 이날 자신으로의 ‘합의 추대’를 전제해 원내대표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맞선 유력 후보로는 4선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과,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이 거론된다.

나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며 무엇보다 당내 유일한 서울 4선 의원이자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당이 참패한 데다 4 선원이 친박계의 무리한 진박(진박근혜) 후보 공천 시도를 포함한 계파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일각에서는 당 수습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 정 당선인의 경쟁력도 녹록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인 정석도 전 내무장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에서 활동한 바 있어 박 대통령과 가깝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각 없다”朴대통령 국정 매진 주문

총선 후 첫 국무회의...공직기강 확립·北 도발 대비 등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각에 “앞으로 여러분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이 없음’을 밝힌 후 내각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14분 정도 진행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함께 개혁과제 완수, 정책 홍보 강화, 관광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문제,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

박 대통령은 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삼기일선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내집연금 3종 세트 정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런 경제 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참패 원인은 친노 호남 홀대론 방치한 탓”

민중정책연구원, 호남총선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

셀프공천 등 전근대적 리더십·무기력 야당에 민심 이반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호남 홀대론’에 따른 민심 이반을 간과해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계파주의와 셀프공천 등 비례대표 공천과, 야당의 무능 등이 패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정책연구원과 강기정·홍중학 의원 주최로 열린 ‘호남총선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의 발제

자로 나선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친노’의 수장으로 각인되고 ‘친노 호남 홀대론’의 장본인으로 호남 유권자에게 각인됐지만, 당내 주류는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호남 참패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호남 홀대론’을 진실이 아니라고 방치해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더민주의 지난 대선 패

배 이후 비전 제시에 실패했고,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골적으로 참여정부 호남홀대론 등으로 지지자를 결집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영남 출신 인사들끼리의 대권경쟁에 대해 깊은 소외 의식을 느끼고 있다가 ‘친노패권주의’ 프레임과 ‘반문재인’ 정서가 더민주를 심판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또 “당 대표의 당무거부, 셀프공천 등 전근대적 리더십에 대한 실망으로 호남지역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오승은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더민주에 대한 민심 이탈은 문제인으로 상징되는 더민주식 계파패권정치와 정당

운영에 대한 비토이면서, 동시에 야당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는 여론의 표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분석했다. 또 “더민주로 대표되는 야당 내에서 정당 내부의 자원분배, 공직후보 결정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약화시켜왔던 정치적 관행은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런 현상으로 호남은 야당 내에서조차 주변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조조되었으며, 호남에 대한 홀대론을 형성하는 동력이 됨과 동시에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창당 과정에서 지지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동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 세차장 매수 70~80평 광주권 5억원대 매수
- ◆ 폐차장 : 1,000평 이상 매수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녹지지역, 8차선도로접,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음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자주치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 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로 50번길 55번지 KT 풍암빌딩 1층(풍암지주자맛은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